

고위공직자 범죄신고
02-6320-0200



제 663 호 (2023년 9월 21일 목요일)

대표전화 : 1533-1545

이재명 “체포안 가결, 檢공작수사에 날개”

사실상 부결 요청…표결 하루 전 폐북 메시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0일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과 관련해 “명백히 불법 부당한 이번 체포동의안의 가결은 정치검찰의 공작 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고 말했다.

장기간 단식하다 입원한 이 대표는 이 날 페이스북에 이같이 밝히고 “검찰 독재의 폭주 기관차를 국회 앞에서 멈춰 세워 달라”고 강조했다.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표결을 하루 앞두고 당내 여론이 분분한 가운데 사실상 부결 투표를 공개 요청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는 “검찰은 지금 수사가 아니라 정치를 하고 있다. 가결하면 당 분열, 부결하면 방탄 프레임에 빠트리겠다는 꼼수”라며 “중립이 생명인 검찰권을 사적으로 남용해 비열한 ‘정치공작’을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내가 가결을 요청해야 한다는 의견도, 당당하게 정면 돌파해야 한다는 의견도 들었다. 훗날 역사가 어떻게 평가할



2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심각한 표정으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듣고 있다.

것인지를 생각해봤다”며 “윤석열 정권의 부

당한 국가권력 남용과 정치검찰의 정치공작에 제대로 맞서지 못하고, 저들의 꼼수에 놀아나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영장 청구가 정당하지 않다면 삼권분립의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한 국회의 결단이 필요하다. 그것이 검찰의 정치개입과 현정 파괴에 맞서는

길이라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공정이 생명인 검찰권을 국회 겹박과 야당 분열 도구로 악용하는 전례를 넘겨선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표는 자신에 대한 영장 청구를 두고 “황당무계하다”, “정치검찰에게 이재명은 무엇을 하든 범죄자”, “대북 송금은 자던 소가 웃을 일” 등으로 조목조목 반박했

다. 이어 “정치의 최일선에 선 검찰이 자신들이 조작한 상상의 세계에 끊임없이 저를 감옥에 가두겠다고 한다. 명백한 정치보복 이자 검찰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자신의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에 대해선 “나는 이미 ‘저를 보호하기 위한 국회는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말씀드렸다. 민주당도 표결이 필요 없는 비회기 중 영장 청구가 가능하도록 여러 차례 기회를 줬다”며 “그러나 검찰은 끝내 이를 거부하고 굳이 정기국회에 영장을 청구해 표결을 강요했다”고 지적했다.

또 “앞으로도 비회기에 영장을 청구하면 국회 표결 없이 얼마든지 실질 심사를 받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윤석열 검찰이 정치공작을 위해 표결을 강요한다면 회피가 아니라 헌법과 양심에 따라 당당히 표결해야 한다”며 “울가미가 잘못된 것이라면 피할 것이 아니라 부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 송진영 기자

前수사단장 군검찰 출석…“지속적인 이첩대상 변경요청 있었다”

국방부 검찰단, 이번 조사 끝으로 기소 여부 정할 듯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20일 군검찰에 출석했다.

박 전 단장은 이날 오후 1시30분께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 변호인과 함께 도착했다.

그가 군검찰 소환조사를 받는 건 지난 달 28일과 이달 5일 이후 세 번째다. 군검찰은 지난달 30일 구속영장을 청구하지만 기각됐다.

박 전 단장의 법률대리인 김정민 변호

사는 “(경찰) 이첩 대상자 8명을 변경하라, 아예 특정하지 말고 넘기라”는 건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차관의 지속적인 요청사항이었다는 게 여러 경로로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병대사령관은 국방장관의 지시사항이 위법했기 때문에 차마

박 전 단장에게 명시적(이첩 보류) 명령을 못 내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국방부 검찰단이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제출한 사전 구속영장청구서에서 정종범 해병대부사령관이 지난 7

월 31일 장관 지시사항으로 ‘수사자료는 법무관리관실에서 최종 정리를 해야 하는데, 협의자를 특정하지 않고, 경찰에 필요 한 자료만 주면 된다’는 내용을 정리해 박 전 단장 등에게 전파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변호사는 “장관 주재 회의에서 그렇게 결론이 도출됐다면 당연히 장관 지시사항이 아니겠느냐”며 “그게 장관 지시가 아니라면 (박 전 단장)이 무엇을 (항명해 서) 어겼는지도 애매해진다”고 지적했다.

군검찰은 사실상 이번 조사를 끝으로 기소 여부를 정하는 방안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단장은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가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해병대 채모 상병 관련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고 보류하라는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혐의로 지난달 2일 군검찰에 입건됐다. 쟁점은 국방부 장관의 명시적 이첩 보류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로, 박 전 단장 측은 그런 지시가 없었다는 주장을 폴고 있다.

한편 이날 박 전 단장 출석 과정에도 빨간 해병대 티셔츠를 입은 전역 전우들이 동행했다.

/ 박현준 기자

Photo News



제78차 유엔총회 참석자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있다.

尹 “유엔과 北도발방지 협력” 유엔 총장 “한국과 긴밀 소통”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 만나 한반도 문제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 세계 안보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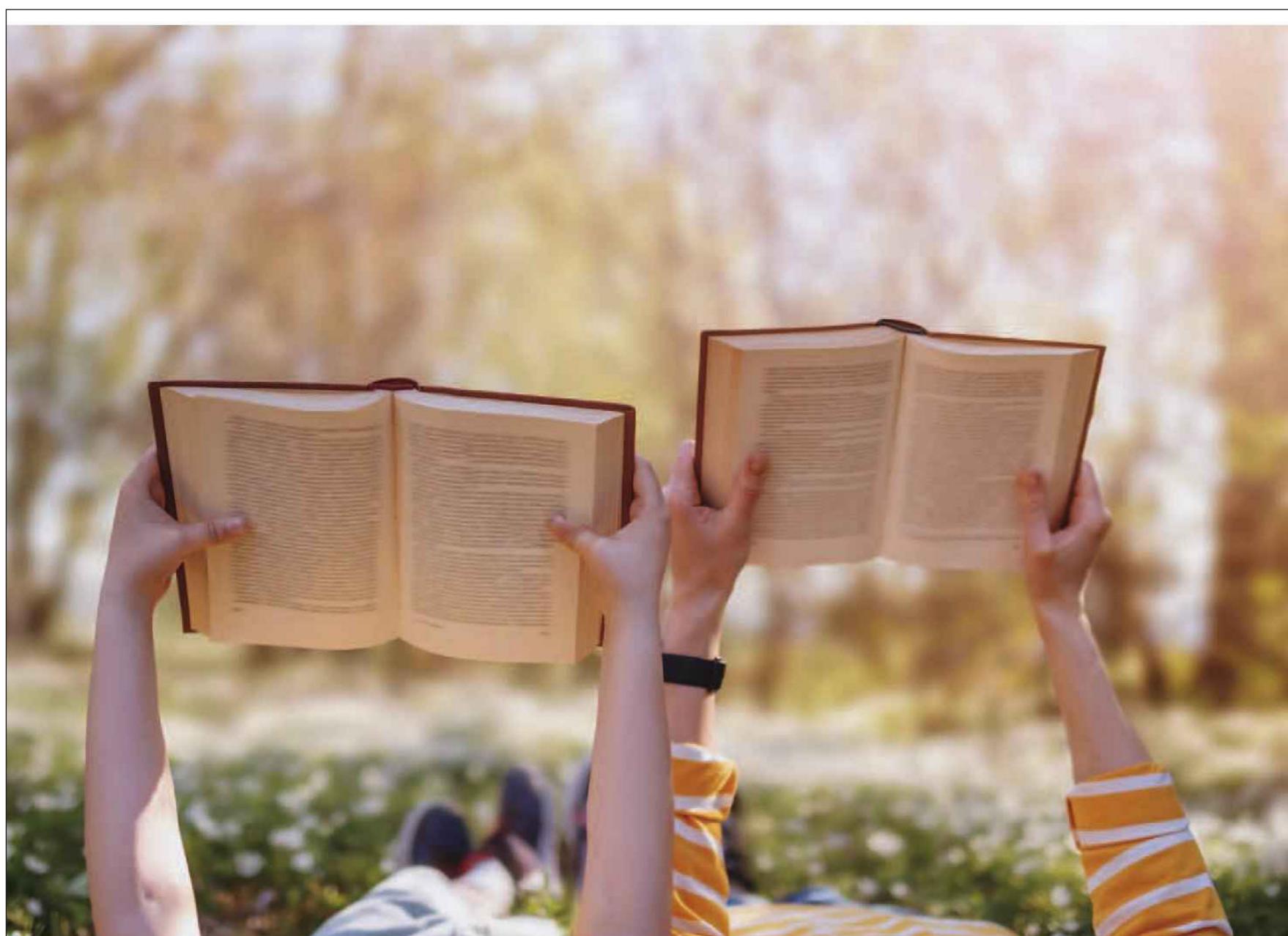
구테흐스 총장은 또 북한의 비핵화와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의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하루 앞두고 이뤄진 회담이다. 윤 대통령은 “복합 위기의 시대에 유엔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연대가 중요하다”며 “우리의 국제적 위상에 걸맞은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2024~25년 임기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으로서 국제사회의 평화 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기여하겠다”며 “글로벌 최대 현안인 우크라이나 평화 정착을 위해 역할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의 도발을 방지하고 북한의 인권상황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유엔과 지속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구테흐스 총장은 “유엔에서 우리 정부의 활동과 기여에 감사하다”며 / 김은성 기자



독서의
계절.
1kWh
줄이기
로부터
시작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
TV와 스마트폰 대신 책을 읽어보는 건 어떨까요?
기울은 전기 사용을 줄일 수 있는 좋은 계절입니다.
작은 습관의 변화로
하루 1kWh 줄이기를 실천해보세요.



‘부결은 방탄·가결땐 분열’…野, ‘이재명 체포안’ 표결 딜레마

‘이재명 단식’ 동정론에 부결 여론 고조…“당론 부결” 주장도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하루 앞둔 20일 진퇴양난의 갈림길에 섰다.

당론으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자니 역풍으로 찾아올 방탄 비판이 부담스럽고, 비명(비이재명)계 표심이 반영돼 가결되면 내용 격화가 불 보듯 뻔해서다.

일각에선 가결 시 당이 분당(分黨) 수순으로 갈 것이라는 우려마저 나오는 상황이다. 일단 당 지도부는 자유투표에 맡기되 부결로 의원들의 흥의를 모으는 방향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재선 의원들과 면담하고 오후에는 긴급 의원총회 개최도 검토 중이다.

당 고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아직까지도 못하는 딜레마 상황”이라며 “큰 이탈 없이 자연스럽게 부결시키는 방향이 현재로선 최선”이라고 말했다.

지도부의 이런 기류는 최근 이 대표의 장기간 단식에 따른 당내 여론 변화와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지난 6월 이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 이후 수그리들었던 체포동의안 부결 목소리가 이 대표의 단식을 기점으로 다시 힘을 받기 시작했다는 것이 다수 의원들의 전언이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윤석열정권 폭정·검찰독재 저지 총력투쟁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특히 이 대표가 건강 약화로 병원에 실려 간 지난 18일 당일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 불붙은 부결 여론에 기름을 부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은숙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무도한 전·현직 검사들이 청구한 체포동의안을 단칼에 부결시키자”며 부결을 재차 주장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많은 당무위원이 체포동의안을 부결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전하기도 했다.

이에 더해 ‘당론 부결’ 방침을 정하자는 주장도 터져 나왔다.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페이스북에서 “당론 부결의 파장은 전선의 유지와 강화로 극복될 것이지만 가결은 자제적 혼란을 낳을 것”이라며 “검찰의 영장 청구는 근거 박약한 부당한 점치 행위니, 부결이 맞다”고 주장했다. 다만, 비명(비이재명)

계를 중심으로 한 ‘가결파’ 숫자도 무시하지 못할 수준이라 표결 결과를 예상할 수 없다는 시각도 있다.

가결표가 예상되는 국민의힘(111명)과 정의당(6명), 시대전환(1명), 한국의희망(1명), 여권 성향 무소속 의원(2명) 등을 고려하면 민주당에서 최소 27명만 가담

해도 가결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는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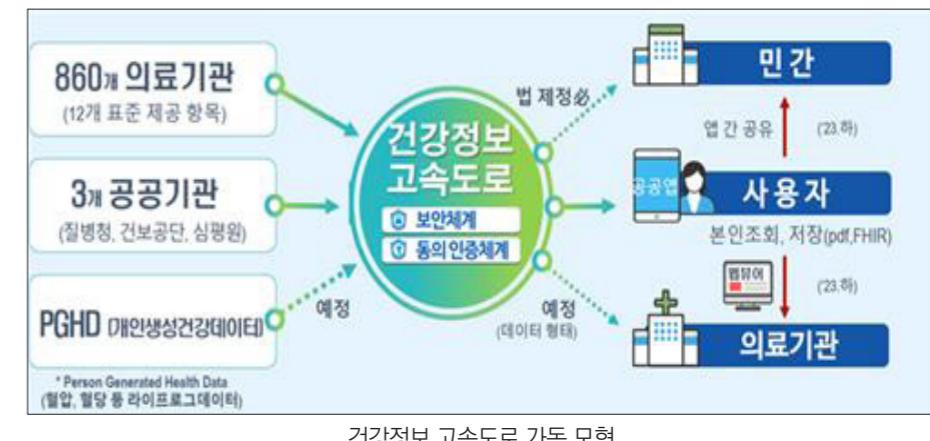
지난 2월 이 대표의 1차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 부결되기는 했지만 민주당에서 30표가량 이탈표가 나왔다는 추정에 당내 갈등이 격화한 바 있다.

비병계인 이원욱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론으로 부결을 정하는 식의 모습을 보인다면 이 대표의 진정성은 사라지고 역시 방탄이었다는 낙인이 찍힐 것”이라며 “이 대표가 직접 가결해달라고 요청하면 당은 분열에 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표결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당내 의원 모임들도 저마다 대책을 논의하는 등 분주한 모습이다. 당내 최대 의원모임인 더좋은미래(더미래)는 이날 아침 긴급 회의에서 체포동의안 부결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더미래 대표인 강훈식 의원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분열의 노림수가 분명한 상황에서 당의 단결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에 공감했다”며 “가결을 주장하는 의원은 없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친문(친문재인) 의원 모임인 ‘민주주의 4.0’, 초선 모임인 ‘더민초’ 등도 자체 의견 수렴에 나섰다. / 송원기 기자



건강정보 고속도로 가동 모형

흩어진 개인 의료정보 한눈에 ‘건강정보 고속도로’ 본격 가동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개인 의료정보를 한눈에 확인하고 원하는 곳에 전송하는 의료데이터 중계플랫폼 ‘건강정보 고속도로’를 지난 15일부터 본격 가동했다고 보건복지부가 20일 밝혔다.

건강정보 고속도로는 여러 기관의 표준화된 의료데이터를 본인 동의 하에 조회·저장하고 원하는 곳에 전송할 수 있게 하는 국가 의료데이터 중계시스템이다.

기존에는 질병관리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보유한 의료정보만 확인할 수 있었는데, 본격 가동을 통해 상급종합병원 9곳, 종합병원 13곳, / 이종임 기자

“추석 전 전화금융사기 문자 주의하세요”



가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부분의 피해는 ‘주문한 물품의 배송지 오류’, ‘신용카드 발급 관련 확인 요청’, ‘A은행 저금리 대출’ 등 문자를 받은 피해자가 문자에 기재된 고객센터로 전화하거나 첨부된 링크를 누르면서 시작된다.

피해자가 전화를 걸면 소비자보호원·금융감독원·수사기관 등을 사칭한 범죄 조직은 해킹 가능성이 있다고 거짓말하며 원격조정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다.

경찰은 피해자가 정부기관의 연락을 받았다고 믿으면 판단력이 흐려져 범인이 시키는 대로 현금 전달과 계좌이체, 각종 담보대출 실행, 예금·주식 처분, 가상자산 구매 등을 하게 돼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 박소희 기자

탈북민 北핵실험 피해증언…“앓는 환자 늘어 귀신병이라 불러”

길주군 출신 탈북민 4명 참석…주최측 “공개 증언은 처음”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이 있는 길주군 출신 탈북민들이 20일 핵실험에 따른 방사능 누출 피해를 공개 증언했다.

제20회 ‘북한자유주간’ 행사의 일환으로 이날 서울 광화문 센터포인트빌딩에서 열린 북한 핵실험 피해 증언 기자회견에는 김준복(이하 가명), 이영란, 남경훈, 김정금 등 길주군 출신 탈북민 4명이 증언자로 참석했다.

2011년 한국에 입국한 김복순 씨는 길주군 거주 당시 북한의 핵실험장이 있는 풍계리에서 흘러 내려오는 남대천의 물을

식수로 이용했다고 한다.

그는 “핵실험장이 건설되고 군인들이 차단봉을 설치하고 이동을 통제하기 전까지만 물 좋고 경치 좋은 시골 마을이었던 풍계리는 이제는 더는 찾을 길이 없다”면서 “언제부터인가 류머티즘 관절염을 앓는 환자가 늘어나고 결핵 환자, 피부염 환자도 늘었다”고 증언했다.

이어 “사람들은 이 밖에도 진단이 명확하지 않은 채 시름시름 앓는 사람들을 가리켜 귀신병에 걸렸다고 했고, 무당을 찾아 부적을 써야 한다는 소문도 돌았다”

고 전했다.

북한의 3차 핵실험(2013년) 때도 길주군에 거주한 이영란 씨는 탈북 후 한국에 입국하고 나서야 핵실험의 인체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한다.

그는 “길주군 주민은 풍계리에서 내려오는 물을 식수로 이용했기 때문에 대부분 피폐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핵실험 후) 하나님께 병원에서 결핵 진단을 받았고, 병에 걸린 지 4년을 넘기지 못하고 죽었다”고 증언했다.

길주군에 남았던 김영란 씨의 아들도

결핵 진단을 받고 세상을 떠났다고 한다.

그는 아들이 평양의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게 하려고 중국을 통해 아들에게 돈을 보냈는데 ‘길주군 환자는 평양에 한 번씩도 들일 수 없다’는 북한 당국의 방침 때문에 제대로 치료도 받지 못했다며 증언했다.

기자회견을 주최한 북한자유주간 준비위원회에 따르면 길주군 출신 탈북민의 북한 핵실험 피해 공개 증언은 이번이 처음이다. 통일부는 올해 들어 북한 핵실험장 인근 지역 출신 탈북민을 대상으로 폭넓은 조사에 착수했다.

솔티 대표는 길주군 출신 탈북민의 증언으로 북한 핵실험에 따른 북한 주민 건강 피해도 전 세계가 알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김호석 기자



중소기업 대표 경영안전망 PL단체보험



국내 최초 운영
20년간 약 7만건 인수



경쟁력 있는 보험료
최대 28% 저렴



경기도 보험료 지원
보험료 20% 이내(백만원 한도)



6개 보험사 참여
삼성화재, 한화손보, DB손보,
롯데손보, 충국화재, 메리츠화재

가입문의 02)2124-4351 www.plkorea.com

* PL단체보험은 생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 했을 때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

KBIZ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대통령실, 文 '안보 월등' 발언에 "굴종적 한산함이 평화 아냐"

고위관계자, 9·19합의 효력정지에 "비정상적 행동 위축 문제점 직시…필요시 판단"

대통령실은 19일(현지시간) 문재인 전 대통령이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 행사에서 '진보 정부에서 안보 성적도, 경제 성적도 월등히 좋았다'고 주장한 데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늘 말씀하는 것처럼 굴종적으로 걸로 보이는 한산한, 평화로운 상황이 평화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미국 뉴욕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압도적인 힘에 의해 구축하는 평화가 진정한 평화"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김대중 정부 때 서해교전



문재인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63빌딩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게 믿음직스럽고 활力 있는 평화이나에서

후에도 북한이 공공연히 합의를 어겨오고 있고, 의도적으로 도발해오고 있다"며

이 관계자는 9·19 군사합의의 효력 정

지 가능성과 관련, "윤석열 정부 출범 이

명했다.

그는 또 "특히 북한에 절대적으로 불리한 감시 정찰 자산, 그리고 공군·해군력의 가동과 평상시 훈련에 대해 비정상적으로 한국의 행동을 위축시켜 놓은 것"이라며 "이 합의를 잘 지켜도 북한은 없는 자산을 가동하지 않는 것이고, 우리는 열심히 해오던 것을 중단하는 것이어서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어떤 행동을 해올지 관찰하고, 나중에 적절한 시점에 필요하다면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제78차 유엔총회에 참석하는 한편 이를 계기로 세계 각국으로부터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지난 18일부터 미

국을 방문 중이다.

/ 배성준 기자



아시안게임, '종합 3위 목표'

대한민국 선수단 본진 항저우로

코리아 파이팅!"을 우렁차게 외치며 의지를 다졌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선수단이 안전하게 사고 없이 다녀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팬데믹으로 연기되면서 어려움이 많았는데, 선수들이 간고닦은 실력을 충실히 발휘하고 왔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이 회장은 축구 훈련장 공개 여부 등 현지 운영이 일부 원활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 "보고받고 있다"며 "대회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개회식을 하고 나면 잘 진행될 거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선수들은 각 종목 경기 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중국으로 향하고 있으며, 이날 출국하는 본진에는 권순우(당진시청)를 비롯한 테니스 대표팀 14명, 사격 대표팀 17명, 하키 대표팀 22명, 스케이트보드 대표팀 7명이 포함됐다. 최윤 단장과 장재근 국가대표선수총장을 비롯한 본부임원 35명도 이날 함께 떠났다.

출국장에서 다 함께 모인 선수단은 태극기와 선전 기원 현수막을 걸어 두고 팀

/ 차형석 기자

추석 연휴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오전 1시까지 연장단속

서울시는 추석 연휴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의 단속 시간을 오전 1시까지 연장한다고 20일 밝혔다.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한남대교 남단~양재IC) 운영시간은 평상시 오전 7시~오후 9시이나 추석 연휴인 9월27일~10월2일은 오전 7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로 4시간 늘린다. 이에 따라 단속 시간도 익일 오전 1시까지로 연장된다.

도로교통법상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9인승 이상 차에 6명 이상 승차한 차

만 통행할 수 있고 그 외의 차가 버스전용 차로에 진입하면 승용차 5만원, 승합차 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 과태료는 단속 카메라에 의해 적발된 횟수만큼 연속으로 부과된다.

도로 내 단속 카메라는 하행 3대(서초

IC, 서초IC 입구, 양재IC), 상행 3대(양재 IC, 서초IC, 반포IC) 등 총 6대가 있다. 시민 신고에 의한 위반 차도 동일하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버스전용차로에 실수로 진입했다가 주변의 차 때문에 버스전용차로를 벗어나지 못하고 단속되는 경우가 있으니 운전자 주의가 필요하다.

시는 고속도로 전광판, 입간판 등을 활용해 버스전용차로 단속 시간 연장을 운전자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이번 추석 명절은 개천절 연휴와 이어져 최대



이동이 예상되는 만큼 안전 운행과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운전자의 준법의식이 더욱 필수적이며 안전한 귀성·귀경길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

고 말했다.

/ 민지윤 기자

'윤석열차' 논란 만화영상진흥원 국고 보조금 대폭 삭감



지난해 풍자만화 '윤석열차'에 학생만화공모전 금상 수상작 '윤석열차'

등이다. 문제부는 이를 예산을 삭감하는 대신 올해 콘텐츠 분야의 예산을 편성하면서 진흥원 사업과 상당 부분 겹치는 웹툰 산업 전문인력 교육' 사업에 20억원을 새로 배정했다.

올해 기준 진흥원 예산 비중은 시비 50%, 국비 48%, 도비 2%로, 예산의 절반을 차지하는 국비가 대폭 줄어들면 내년 사업이 크게 위축될 전망이다.

부천시는 내년에도 올해 수준(103억원)의 시비를 출연금으로 진흥원에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진흥원 측은 이에 예산이 삭감된 사업은 지속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내년부터 중단할 계획이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 관계자는 "아직 예산 삭감이 확정된 상황은 아니지만 추후 국회 심의를 거쳐 예산이 깎이면 사업이 중단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만화영상진흥원이 주최한 제23회 전국학생만화 공모전 카툰 부문에서 윤 대통령 풍자만화인 '윤석열차'가 금상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지난해 9~10월 열린 제25회 부천국제만화축제에서 이 작품이 전시돼 논란이 일자 문제부는 학생 공모전 취지에 적합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흥원에 엄중 경고를 하고, 학생만화공모전 후원 단체에서도 빠졌다.

/ 양재원 기자

추석 승차권 암표 의심사례 25건 접수…코레일 "단속 강화"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추석을 앞두고 최근 열차 승차권 부당거래 등을 단속 중인 가운데 모두 25건의 암표 의심 사례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코레일에 따르면 지난 12일부터 홈페이지(www.letskorail.com)에 '암표 제보 게시판'을 신설해 제보받고 있는데, 지금까지 총 25건의 암표 의심 사례가 신고됐다.

코레일은 제보된 승차권 암표 거래 게시글은 해당 사이트에 삭제를 요청하고, 주요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의 암표 거래 게시물을 지속적으로 관찰해

불법·유해 정보로 신고하고 있다.

또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개설해 명절 승차권에 웃돈을 붙이는 등 영업적 판매가 의심되는 사례는 철도사업법 위반 혐의로 철도사법경찰대에 조사를 의뢰하고 있다.

열차 승차권을 자신이 구매한 가격보다 비싸게 되파는 암표 거래는 철도사업법을 위반하는 불법 행위로, 상습 또는 영업적으로 암표를 판매하면 과태료 500만원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코레일은 명절 기간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해 다양한 승차권을 부당하게

선점하는 의심 사례를 발견할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조치할 방침이다.

지난 설에는 매크로를 사용한 회원 4명을 강제 탈퇴 조치했고, 이번 추석에는 의심 사례를 발견하면 경찰청에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암표 거래와 승차권 부정 사용은 유통 질서를 어지럽히는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이를 바로잡고 올바른 열차 이용 문화 확립을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백한준 기자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GS그룹이 응원합니다

**내일을 위한
또 다른 도전**

Green Transformation

한 발 앞서 미래를 마주하며,
에너지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해온 GS칼텍스는
ESG 경영을 기반으로 다가올 미래를 준비합니다.
우리 모두의 풍요로운 삶, 더 나은 내일을 위해
기존 사업에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저탄소 신사업을 발굴하며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혁신으로 에너지의 미래를 열다.

플라스틱 리사이클링
플라스틱 순환경제 구축을 위한 MRCC 사업

수소/CCUS 사업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모빌리티용 핵심부품·생산공장, CCUS 청정수소 플러스터 등 구축

하이트 바이오 사업
기존 화석연료(천연가스)로 생산되는 제품을 대체하는
바이오연료, 바이오제품 사용 확산

I am your Energy

GS 칼텍스

윤재옥 “대선공작, 국민주권 친탈 시도…통계조작은 국기문란”

교섭단체 대표연설…“극렬 지지층에 기댄 팬덤정치, 민주주의 붕괴시켜”



발언하는 윤재옥 원내대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0일 “지난 정부는 정책을 고치는 대신 통계를 조작했다. 상상하기도 힘든 국기문란 행위”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최근 감사원 감사로 드러난 부동산 통계 조작 역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 아닐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정부가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이용해 가짜 통계와 가짜 뉴스를 생산한 것”이라며 “관련자 엄단은 물론, 다시는 정치 권력이 국가 통계에 손댈 수 없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또 “가짜 인터뷰 대선 공작 게이트’는 우리 민주주의의 위기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며 “선거를 방해·조작하는 이런 범죄야말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테러이며 국민 주권을 침탈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그리면서 “가짜뉴스를 막는 일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중차대한 과제가 됐다”며 “선거법 등 개정 과정에서 가짜뉴스 대응 방안을 확실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극렬 지지층에 기댄 팬덤정치와 이로 인한 극단적 대결 구도가 민주주의 붕괴의 기저에 있다”며 “목소리 큰 극렬 소수가 정당의 정상적 의사 결정까지 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대로 가면 여야 가리지 않고 공멸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며 “의회민주주의 복원이라는 거시적 시각에서 팬덤 정치의 폐해를 살피고 여야가 해결책을 찾자”고 제안했다.

또한 “우리 스스로 육설과 막말부터 자제하고 여야 소통도 늘려나가자. 정치 문화를 바꿔 협치의 지혜를 발휘하자”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한일 관계 복원과 관련해 “한일 관계가 악화되고 한미일 공조가 흔들리면 안보가 불안해지고 경제도 타격을 받으면서, 결국 우리 기업과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면서 “반일 감정을 선동하고 정부 외교를 비난하며 국민을 편 가르는 일도 이제 면憔야 한다”고 야당에 촉구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해선 “국민 대다수는 국제사회와 정부를 믿고 일상을 유지하고 있다”며 “야당이 대응 방향을 바꿀 때가 됐다”고 했다.

이와 함께 윤 원내대표는 ‘민생 8대 과제’로 ▲ 사회적 약자 지원 ▲ 인구 위기 극복 ▲ 기업과 경제의 활력 제고 ▲ 좋은 일자리 창출 ▲ 부동산 시장 안정 ▲ 기후 변화 대응 ▲ 국민 안전 ▲ 지방 살리기와 균형 발전 등을 꼽으며 야당의 협력을 요청했다.

특히 사회적 약자 지원과 관련, 전임 정부의 ‘보편복지’와 결이 다른 윤석열 정부의 ‘약자 복지’ 기조를 강조하며 “민주당도 포퓰리즘의 달콤한 유혹을 버리고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노동·연금·교육개혁을 위한 여야 협력을 당부하는 한편, 인구 절벽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상설화, 기업과 경제의 활력 제고 논의를 위한 ‘규제개혁 여야정 협의체’ 구성도 제안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와 관련, “제 식구 감싸기”부터 과감하게 포기해야 한다. 국회의원의 잘못을 제대로 징계하자”며 “국회 윤리특위 운영 개선 TF’ 구성은 민주당에 제안했다.

이밖에 법안 발의 남발을 막고 입법 품질을 높이기 위한 ‘의원 입법 영향 분석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 이영찬 기자

‘후원금 횡령’ 윤미향 2심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법정 항변하는 ‘후원금 횡령’ 윤미향 의원

서울고법 형사1-3부(마용주 한창훈 김우진 부장판사)는 20일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윤 의원은 2015~2019년 관할관청 등록 없이 단체계좌로 41억원의 기부금품을 모집하고 김복동 할머니의 장례비 등 1억7천만원의 기부금품을 개인 계좌로 모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올해 2월 윤 의원의 보조금법 위반·업무상배임 등 혐의 가운데 1천718만원 횡령만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1천 500만원을 선고했다.

현역 국회의원이 어떤 범죄든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 김석호 기자

김행 “주식파킹 결단코 없어”…이준석 주장도 정면 반박

“적자회사 주식, 백지신탁 불가능…주식 매입 요청에 되사들여”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빛만 남은 회사의 주식을 거의 대부분 샀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일 제가 주식을 전량 팔지 않았다면 청와대 대변인으로서 주식을 백지신탁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언론으로부터 혹독한 질책을 받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백지신탁 후 지배회사인 소셜홀딩스엔 시누이의 주식이 0%이고 소셜뉴스만 12%가 됐는데, 이는 회사 경영에 전혀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지분”이라고 강조했다.

주식을 재인수한 배경에 대해서는 “2018년 전후로 회사가 급격히 어려워지자 우리사주를 갖고 있던 직원들과 주주들이 주식 매입을 요청했고, 저희 부부는 이를 모두 수용하고 2019년까지 주식을 전량 사줬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당시 대표와 그의 우호지분, 투자회사의 지분, 우리사주까지 거의 전량 매입했다. 그야말로 빙 dap에다가

들었다”며 “그때 이 대표는 누구를 왜, 무슨 이유로 추천했습니까? 공천에 개입하기 위한 통로였습니까?”라고 반문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18일 KBS ‘더 라이브’에 출연해 “김 후보자를 공관위원에 추천한 사람(당 대표도 아니고, 공천관리위원장도 아니라면 누군가 그런 정도의 영향을 가진 사람이 추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김건희’ 여사가 김 후보자를 추천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제가 확인해줄 필요가 있느냐”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후 2023 세계카 우트잼버리 대회장이었던 새만금 현장을 방문한다. 그는 “인사청문회준비단 회의에서 지난 18일 결정됐던 예정된 일정”이라며 “충실했던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한 현장 방문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 민효성 기자

SH의 혁신

주택을 바꾸고 건설산업을 바꿉니다.

직접시공제
국내 최초로 70억 원 이상 건설공사에 대해
직접시공제를 확대 시행하여 책임시공 강화로
부실시공 및 인천사고를 예방하며 고품질 주택 건설 선도

사전예약제
후분양시점(건축공정률 90%)에
본착약을 진행함으로써 수분양자의
대출 기준과 중도금 부담을 경감

후분양제
건축공정률 90% 시점에 입주자를 모집
실제 주택을 확인한 후 계약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분양원가 공개
건설원가 6개 항목과 핵심조성원가
10개 항목 등 총 16개 항목을 모두 공개

고품질 주택
‘서울형 건축비’, ‘서울형 길리를 도입하여
100년 이상 구조적으로 안전하고 오래가는
고품질 백년주택 추진

사업결과 공개
착수 전 사업성 검토 내용과 사업 종료 후
결과를 비교 분석 수의 재투자 및
향후 개발방향 공개

직접임금제
건설현장 근로자에게 직접임금을 보장해
숙련 근로자를 유일, 안전사고를 줄이고
주택 품질 제고

설계도면 공개
원내에서 공개와 더불어 외공사가
건설하는 공동주택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여 공동주택에 대한
시민의 신뢰성 확보에 기여

자산 공개
대한민국 공기업 최초로 주택, 건물, 토지 등
보유한 자산의 전면 공개를 통해
시민의 알 권리 총족 및 열린 경영 실천

건물만분양 ‘백년주택’
토지는 공유기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해 주민 시대의
40~60% 가격으로 주택 공급

보증부 “야당 단독 ‘동학법’
개정안 처리는 특혜 포퓰리즘”

국가보훈부는 20일 동학농민혁명 유공자를 독립유공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보훈 관련 법안을 무시하고 형평성도 간과한 과도한 특혜를 주는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보훈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동학법 개정안)은 전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 안심사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보훈부 “야당 단독 ‘동학법’

개정안 처리는 특혜 포퓰리즘”



봉기를 독립유공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보훈 관련 법안을 무시하고 형평성도 간과한 과도한 특혜를 주는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동학법 개정안)은 전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 안심사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보훈부는 “문화예술소외에서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법률로 강제해 입법한 것은 독립유공자 서훈 체계를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의 경우 엄격한 보훈심사를 거쳐 유공자로 인정하는 반면, 동학법 개정안은 대상자를 심사 절차 없이 무조건 유공자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동학법 개정안은 동학농민운동 황토현 전적지가 있는 전북 정읍을 지역구로 둔 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발의했다. 문체위 소위에서 처리된 동학법 개정안은 ‘2차 봉기’ 참여자들을 독립유공자로 인정하자는 것이다. 앞으로 문체위 전체회의와 법사위원회, 국회 본회의 등 관문이 남았지만 최종 통과될 경우 올해 2월 기준 3천 196명이 독립유공자 인정 대상이 된다. 유공자 후손들은 교육·취업·의료 등 여러 방면에서 정부 지원을 받는다.

국회 문체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동학법 개정안을 심사할 계획이다.

/ 노승만 기자

배승아양 스쿨존 음주 사망사고 낸 60대에게 징역 15년 구형

검찰 “음주운전 범행에 사법부가 경종 울려야”…내달 20일 선고

대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인도를 덮쳐 배승아(9)양을 치어 숨지게 한 60대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대전지검은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직 공무원 방모(66)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상·위험운전치사상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죄책에 걸맞은 처벌을 해달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부모가 자식을 잃는 슬픔은 창자가 끊어지고 눈이 멀 정도의 고통이라고 한다”며 “깊은 고통에도 불구하고 유가족이 법정에 출석해 기억하기 싫은 일을 떠올리며 진술하는 것은 다시는 무고한 희생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이라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다른 피해자들도 사고 이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여전히 사고가 난 그날에 갇혀 있다”면서 “배승아 양 사고 한 달 후 수원에서 8살 남아가 신호 위반 차량에 치여 숨지는 등 무고한 피해자들의 희생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호송 차량으로 이동하는 대전 스쿨존 사망사고 음주운전자

끝으로 “입법부의 개정, 행정부의 제도 개선 노력에도 여전히 음주운전 범행은 계속되고 있다”며 “사법부가 음주운전이 다시는 일어나선 안 된다는 경종을 울려 달라”고 요청했다.

방씨 변호인은 “피해자들에게 상처가 될 수 있음을 알기에 변론을 생략할까 고민하기도 했다”며 “반성한다는 말도 변명이 될 수 있음을 알지만 진심으로 무릎꿇고 사죄드릴 기회를 주시길 바란다”고 변론했다.

방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갈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머리 숙여 깊이 사죄드린다”며 “제가 지은 죄를 한시도 잊어본 적 없다. 죄값을 달게 받겠다”고 울먹이며 말했다.

재판을 방청하던 배양 모친은 방씨의 최후 진술을 듣지 않겠다는 듯 귀를 막고 흐느꼈다.

모친은 “차마 따라갈 수 없어 버티고 있는 유족들 앞에서 ‘죽을’ 죄라고 말하지 말라”면서 “어떤 사과와 변명도 듣고 싶

지 않다. 엄벌에 처해달라”며 오열했다.

배양 측은 방씨의 공탁금 수령도 거부했다. 방씨는 지난 4월 8일 오후 2시 21분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대전 서구둔산동 탄방중 인근 교차로 스쿨존 내에서 도로 경계석을 넘어 인도로 돌진, 길을 걷던 배양을 치어 숨지게 하고 함께 있던 9~10세 어린이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방씨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웃도는 0.108%로 나타났다. 돌진 당시 운전 속도도 시속 42km로, 법정 제한 속도(30km)를 초과했다. 그는 이날 낮 12시 30분께 대전 중구 태평동의 한 식당에서 지인들과 술자리를 한 뒤 사고 지점까지 5.3km 거리를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방씨가 1996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또 음주운전을 하고 도 적발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자백을 통해 추가로 확인됐다.

선고 공판은 내달 20일 열린다.

/ 배현욱 기자



‘역대 최대 횡령사고’

경남은행 PF 횡령액 3천억원 육박

당초 500억원대로 알려졌던 BNK경남은행 횡령 사고 규모가 3천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대 금융권 횡령 사고 중 가장 규모가 크다. 작년 우리은행 횡령 사고(668억원)가 그간 최다 횡령액으로 알려져 있었다.

금융감독원은 20일 경남은행 횡령 사고 조사 결과, 투자금융부 직원 이모(50)씨의 횡령 규모가 2천988억원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허위 대출 취급을 통해 횡령액이 1천 23억원, 서류 위조 등을 통해 대출 원리금 상환 자금을 빼돌린 규모가 1천965억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이씨는 PF대출 차주들이 대출 취급을 요청한 사실이 없는데도, 허위 대출 서류를 만들어 거액의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허위 대출금은 무단 개설한 계좌나 가족·지인 명의 계좌 등에 이체됐다. PF대출 차주(16개 시행사)가 정상 납입한 대출 원리금 상환자금도 지인·가족 명의 범인에 빼돌렸다.

자신의 횡령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다른 시행사 대출 계좌로 송금시킨 경우도 있었다. 이씨는 거액의 횡령 자금을 골드바나 부동산 매입, 골프·피트니스 회원 구매, 자녀 유학비, 주식 투자 등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횡령에 따른 경남은행의 순손실 규모는 595억원으로 집계됐다.

15년간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업무를 담당해온 이씨는 2009년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본인이 관리하던 17개 PF 사업장에서 총 2천988억원을 빼돌린 것

으로 드러났다.

BNK금융지주와 경남은행 모두 이씨와 관련된 금융 사고 정황을 지난 4월 초 인지했지만, 자체 조사 등을 이유로 금융당국 보고는 지연됐다. 금감원은 지난 7월 21일부터 긴급 현장조사에 착수했으며 지난 달 초까지 500억원대의 횡령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검사를 통해 횡령 혐의를 추가로 포착했다.

금감원은 “이번 거액 횡령 사고는 BNK 금융지주와 경남은행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기능 전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발생했다”고 진단했다.

BNK금융지주는 자회사인 경남은행의 위험 관리 및 업무실태 점검에 소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BNK금융지주는 경남은행에 대한 내부 통제 관련 테마 점검을 실시하면서도 고위험 업무인 PF대출 취급 및 관리에 대해서는 점검을 실시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경남은행은 2020년째부터 PF 대출이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이었다.

경남은행은 이씨가 15년간 동일 부서에서 PF대출 업무를 담당했음에도, 장기 근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명령 휴가를 한 번도 실시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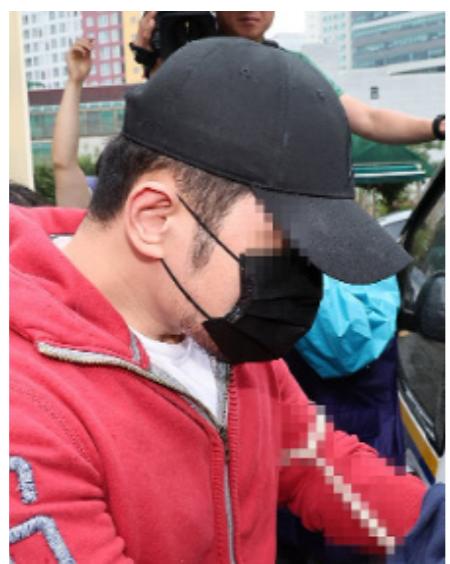
이씨에게 자신이 취급한 PF 대출에 대해 사후관리 업무까지 수행하게 하는 등 직무 분리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금감원은 “횡령 금액 사용처를 추가 확인하고 조사 결과 확인된 사고자 및 관련 임직원의 위법·부당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 최경석 기자

‘경찰관 추락사’ 마약 모임 주도 2명 구속 송치

홍콩으로 출국한 중국인 1명도 입건



용산 경찰관 추락사 마약 모임 피의자 검찰 송치

이들 3명을 포함해 모임에 참석했던 5명은 마약 간이시약 검사와 이후 정밀감정에서 케타민·MDMA(엑스터시)·필로폰 등 마약류 양성 반응을 보였다.

정씨는 대마도 양성 반응이 나왔다. 이씨의 소변에서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는 메스케치논과 펜사이클리딘 유사체 성분이 추가로 검출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교수)에 나머지 참석자들의 마약 투약 여부 감정도 의뢰했다. 정밀 감정 결과에 따라 구속되는 참석자가 더 나올 수도 있다.

이들의 모임은 지난달 27일 오전 5시께 강원경찰청 소속 A 경장이 이 아파트에서 주택해 숨지면서 알려졌다.

경찰은 A 경장을 포함해 22명이 모임에 참가한 사실을 확인하고 일행을 모두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미 홍콩으로 출국한 중국 국적 남성 1명도 신원을 특정해 최근 입건했다. 혐의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면 국제공조 등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참석자들은 경찰 조사에서 A 경장이 창문을 열고 뛰어내렸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 경장이 투신할 당시 방 안에 다른 일행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A 경장과 일행의 전후 행적을 살펴보고 있다. 조만간 국과수에서 A 경장의 부검 결과도 넘겨받아 정확한 사망 원인과 마약 투약 여부를 분석할 예정이다.

경찰은 모임과 별개로 A 경장에게 마약류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 문모(35·구속)씨를 오는 21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A 경장의 휴대전화에서 마약을 거래한 흔적이 나왔으나 문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 신승경 기자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추석 선물 30만원까지! 청탁금지법이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상향

기존



평상시
10만원

[설날·추석 20만원*]

현재



평상시
15만원
[설날·추석 30만원*]

선물에 물품·용역 상품권 포함

기존



물품



물품 + 물품·용역
상품권



* 금액상품권은 제외 (백화점상품권 등)

“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이 지향하는 청렴한 공직문화 및 사회 풍토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 올해 추석 30만원까지 선물(상품권 포함)이 가능한 기간은 9월 5일부터 10월 4일까지입니다.
* 공직자 등은 직무와 관련해 선물을 비롯한 일체의 금품등을 받을 수 없으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과 같은 정당한 목적 범위 내에서 제공되는 선물에 한해 예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음.

정부, 전기요금 인상여부 결정 안할듯…한전 '추가 자구책'도 관건

추석 전엔 인상여부 결정 안할듯…한전 '추가 자구책'도 관건

고유가·고환율로 한국전력의 재무 상황이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가 전기요금을 추가로 올리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20일 “관계 당국이 전기요금 인상 문제를 협의 중”이라며 “(인상 시) 시기 및 폭 관련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작년부터 40% 가까이 전기요금이 오른 만큼 최근까지 정부 안에서는 ‘국민 부담을 고려할 때 추가 인상에 신중해야 한다’는 기류가 우세했다. 실제 지난 5월 전기요금 인상 이후 한전은 전기를 팔수록 손해를 보는 ‘역마진 구조’에서 벗어나는 듯했다.

하지만 최근 국제 에너지 가격 및 원/달러 환율의 ‘고 공행진’이라는 변수에 직면했다. 당초 한전은 ‘2023~2027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보고서’에서 올해 원/달러

환율을 1천270원, 브렌트유 가격을 배럴당 82.8달러로 전제했다. 이는 ‘내년 2조원대 영업이익’이라는 예상으로 이어졌다. 그렇지만 현실은 한전의 ‘부정적 시나리오’에 가까운 상황이다.

환율과 에너지 가격이 당초 예상보다 각각 5%, 10% 상승한 ‘부정적 시나리오’ 상으로 올해와 내년 영업손실



은 각각 9조원대, 6조원대에 이를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부채 비율은 1천%대까지 폭증할 수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해 만일 추가 전기요금 조정이 이뤄진다면 이론적으로 가능한 인상 시기는 오는 21일이다.

정부는 매 분기가 시작되기 전달의 21일까지 전기요금의 한 부분인 ‘연료비조정요금’을 조정한다. 다만 연료비조정요금은 1킬로와트시(kWh)당 ±5원의 범위에서 조정되므로 ‘미세조정’에 불과하다.

관건은 전기요금 내 ‘전력량요금’ 조정이다. 그동안 전기요금 인상 시 연료비조정요금과 함께 전력량요금이 상

향 조정됐다. 다만 전력량요금 조정 시기는 ‘매 분기 시작 전달의 21일까지’로 끝나고 있지 않다.

이는 전기요금 인상 시점을 ‘9월 21일’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뜻이다. 나아가 추석을 앞둔 데다, 전기요금 인상 여부의 ‘키’를 쥐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한전 사장이 오는 20일 동시에 취임하므로 ‘취임 직후 인상’은 물리적으로 어려워 보인다.

여기에 방문규 신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에게 요금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할 수준 정도가 되려면 빼를 깎는 구조조정 선행 없이는 그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며 요금 인상을 위해선 한전의 추가 자구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따라서 정부 안팎에서는 만약 전기요금을 인상하더라도 추석 연휴가 지나고, 김동철 한전 신임 사장이 ‘한전 추가 자구안’을 내놓은 뒤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여권 관계자는 “정부 내에서 전기 요금 인상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지만 (연료비조정요금이 결정되는) 20일까지는 결정이 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 김진수 기자

21일부터 일주일간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145개 전통시장 참여

국산 신선 농축수산물 구매 때 금액의 30~40% 환급

이번 행사는 당일 국산 신선 농축수산물 등 구매 금액의 최대 30~4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행사다.

전국상인연합회 및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선정한 145개 전통시장이 참여한다.

국산 신선 농축수산물 구매 영수증을 시장 내에 위치한 행사 부스에 제시하면

구매 금액에 따라 1만원 또는 2만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이번 추석에는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참여 전통시장 수를 올해 설보다 확대했다.

할인행사 참여 시장 등 자세한 내용은 행사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 이민영 기자



국내 금융기관 중 최고
Aa2
Moody's 국제신용등급

자본시장의 숲을 성장시키는
한국증권금융

투자자 한 분 한 분이, 증권사 한 곳 한 곳이 모두 틈틈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한국증권금융이 함께 하겠습니다 건강한 자본시장의 숲을 이루어 가겠습니다

자본시장의 성장파트너, 한국증권금융

한국증권금융
Korea Securities Finance Corp.

금융위원장 “연내 햇살론 유스·근로자 햇살론 확대 지원”

서민금융지원 현장 방문…“소액생계비대출 내년에도 올해 수준 공급”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0일 대표적 정책서민금융 상품인 햇살론을 확대 공급하는 등 서민들의 자금 수요에 적극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양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현장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연내 근로자 햇살론과 만 34세 이하 청년이 이용하는 햇살론 유스를 당초 계획보다 확대 지원해 올해 정책 서민 금융 공급 규모를 10조원에서 1조원 이상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근로자햇살론은 연내 2조6천억원에서



3조2천억원으로 6천억원 늘려 공급한다. 만 34세 이하 청년이 이용하는 햇살론 유스 공급 계획은 2천억원에서 3천억원으로 1천억원 늘었다.

김주현 위원장은 “서민 자금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재정 투입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내년 정부 예산안을 수립했다”며 “3월부터 시행된 소액생계비대출 이용 수요가 지속되는 점을 고려해 내년에도 올해와 유사한 수준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취약계층의 정상 경제활동 복귀를 위해 기존 약정 이자를 30~50% 낮춰주는 ‘신속체무조정 특례 프로그램’ 적용 대상을 청년층에서 전 연령대로 확대한 바 있다.

연체 채무자의 이자와 추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조속한 입법화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 백현주 기자

기아, 전기차 택시 안전교육 ‘찾아가는 EV 택시 굿 드라이빙’

기아는 전기차(EV) 택시 운전사를 위한 맞춤형 안전 교육 프로그램 ‘찾아가는 EV 택시 굿 드라이빙’을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국내 택시업계의 전기차 비중이 커지는 상황에서 택시 운전사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전기차 주행을 돋기 위해 처음 마련됐다.

카이즈유데이터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신규 등록된 택시 가운데 37.9%는 기아 EV6·니로, 현대차 아이오닉5 등 전기차였다. 지난 2021년(14.2%)에 비해 급증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전국 택시 운전사 560여명을 대상으로 지난 19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개인택시조합 지역지부 및 기아 서비스센터 등에서 15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전기차 주행 시스템의 이해, 전기차와



기아 전기차 택시 안전교육

내연기관차의 차이 및 특장점 소개, 연비 효율 향상을 위한 회생제동 시스템의 이해 및 안전한 사용법, 전문가와의 질의응답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기아는 택시 전용 모델로 개발된 목적 기반 모빌리티(PBV) 전기차 니로 플러스와 EV6를 교육 현장에 지원한다.

기아 관계자는 “전기차 택시가 늘어나는 추세인 만큼 앞으로도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 기회를 지속해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정희수 기자

인천 검단아파트 붕괴사고 시공사·입주예정자 보상 협의 진통



시위 나선 검단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

지난 4월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와 입주예정자 사이에 보상 협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

20일 인천검단AA13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에 따르면 시공사인 GS건설과 비대위는 2개월째 보상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좀처럼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GS건설 측은 '6천만원 무이자 대출'과 '3천만원 무이자 대출 + 7천500만원 주택 도시기금 금리 대출' 가운데 입주예정자들이 하나를 선택하는 보상안을 제시한 상태다. 무이자 대출의 경우 전용면적 84㎡ 평형을 기준으로 분양가 4억2천만원 중 계약금과 중도금 일부를 제외한 2억1천만원을 고려해 산정한 금액이다.

GS건설 측은 검단신도시가 있는 인천 서구의 평균 전세가 2억4천만원에서 잔금 2억1천만원을 뺀 3천만원을 적정 대

출 지원금으로 책정했다. 여기에 입주예정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3천만원을 추가 지원해 총 6천만원을 무이자로 대출해준다.

총 1천666가구에 이르는 해당 아파트 단지는 전체의 84.8%가 특별공급으로 분양됐으며 이 중 신혼부부나 생애최초 분양인 경우는 915가구에 달한다.

지난 4월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와 입주예정자 사이에 보상 협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

비대위는 지원금 산정 기준을 서구 평균 전세가 2억4천만원이 아닌 입주 예정 아파트 부근 평균 전세가 3억3천만원으로 삼을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 경우 대출 지원 규모는 1억2천만원으로 늘어나

GS건설 측이 제시한 보상안과 비교해 큰 차이가 생긴다. 비대위는 입주 예정 아파트의 경우 실거주 목적으로 청약한 경우

가 많은 만큼 당장의 주거 문제를 해결할 지원도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총 1천666가구에 이르는 해당 아파트 단지는 전체의 84.8%가 특별공급으로 분양됐으며 이 중 신혼부부나 생애최초 분양인 경우는 915가구에 달한다.

지난 4월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와 입주예정자 사이에 보상 협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

비대위는 지원금 산정 기준을 서구 평균 전세가 2억4천만원이 아닌 입주 예정 아파트 부근 평균 전세가 3억3천만원으로 삼을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 경우 대출 지원 규모는 1억2천만원으로 늘어나

GS건설 측은 '6천만원 무이자 대출'과 '3천만원 무이자 대출 + 7천500만원 주택 도시기금 금리 대출' 가운데 입주예정자들이 하나를 선택하는 보상안을 제시한 상태다. 무이자 대출의 경우 전용면적 84

m² 평형을 기준으로 분양가 4억2천만원 중 계약금과 중도금 일부를 제외한 2억1천만원을 고려해 산정한 금액이다.

GS건설 측은 GS건설 측이 제시한

보상안의 지원 규모가 턱없이 부족하고

중도금 이자 관련 지원책도 전무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비대위는 지원금 산정 기준을 서구 평

균 전세가 2억4천만원이 아닌 입주 예정

아파트 부근 평균 전세가 3억3천만원으

로 삼을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 경우 대

출 지원 규모는 1억2천만원으로 늘어나

GS건설 측이 제시한 보상안과 비교해 큰

차이가 생긴다. 비대위는 입주 예정 아파

트의 경우 실거주 목적으로 청약한 경우

가 많은 만큼 당장의 주거 문제를 해결할 지원도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총 1천666가구에 이르는 해당 아파트 단지는 전체의 84.8%가 특별공급으로 분양됐으며 이 중 신혼부부나 생애최초 분양인 경우는 915가구에 달한다.

지난 4월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와 입주예정자 사이에 보상 협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

20일 인천검단AA13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에 따르면 시공사인 GS건설과 비대위는 2개월째 보상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좀처럼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GS건설 측은 '6천만원 무이자 대출'과

'3천만원 무이자 대출 + 7천500만원 주택

도시기금 금리 대출' 가운데 입주예정자

들이 하나를 선택하는 보상안을 제시한

상태다. 무이자 대출의 경우 전용면적 84

m² 평형을 기준으로 분양가 4억2천만원

중 계약금과 중도금 일부를 제외한 2억1천만원을 고려해 산정한 금액이다.

GS건설 측은 GS건설 측이 제시한

보상안의 지원 규모가 턱없이 부족하고

중도금 이자 관련 지원책도 전무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비대위는 지원금 산정 기준을 서구 평

균 전세가 2억4천만원이 아닌 입주 예정

아파트 부근 평균 전세가 3억3천만원으

로 삼을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 경우 대

출 지원 규모는 1억2천만원으로 늘어나

GS건설 측이 제시한 보상안과 비교해 큰

차이가 생긴다. 비대위는 입주 예정 아파

트의 경우 실거주 목적으로 청약한 경우

가 많은 만큼 당장의 주거 문제를 해결할

지원도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총 1천666가구에 이르는 해당 아파트

단지는 전체의 84.8%가 특별공급으로

분양됐으며 이 중 신혼부부나 생애최초

분양인 경우는 915가구에 달한다.

지난 4월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와 입주예정자 사이에 보상 협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

20일 인천검단AA13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에 따르면 시공사인 GS건설과 비대위는 2개월째 보상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좀처럼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GS건설 측은 '6천만원 무이자 대출'과

'3천만원 무이자 대출 + 7천500만원 주택

도시기금 금리 대출' 가운데 입주예정자

들이 하나를 선택하는 보상안을 제시한

상태다. 무이자 대출의 경우 전용면적 84

m² 평형을 기준으로 분양가 4억2천만원

중 계약금과 중도금 일부를 제외한 2억1천만원을 고려해 산정한 금액이다.

GS건설 측은 GS건설 측이 제시한

보상안의 지원 규모가 턱없이 부족하고

중도금 이자 관련 지원책도 전무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비대위는 지원금 산정 기준을 서구 평

균 전세가 2억4천만원이 아닌 입주 예정

아파트 부근 평균 전세가 3억3천만원으

로 삼을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 경우 대

출 지원 규모는 1억2천만원으로 늘어나

GS건설 측이 제시한 보상안과 비교해 큰

차이가 생긴다. 비대위는 입주 예정 아파

트의 경우 실거주 목적으로 청약한 경우

가 많은 만큼 당장의 주거 문제를 해결할

지원도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총 1천666가구에 이르는 해당 아파트

단지는 전체의 84.8%가 특별공급으로

분양됐으며 이 중 신혼부부나 생애최초

분양인 경우는 915가구에 달한다.

지난 4월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와 입주예정자 사이에 보상 협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

20일 인천검단AA13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에 따르면 시공사인 GS건설과 비대위는 2개월째 보상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좀처럼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GS건설 측은 '6천만원 무이자 대출'과

'3천만원 무이자 대출 + 7천500만원 주택

도시기금 금리 대출' 가운데 입주예정자

들이 하나를 선택하는 보상안을 제시한

상태다. 무이자 대출의 경우 전용면적 84

m² 평형을 기준으로 분양가 4억2천만원

중 계약금과 중도금 일부를 제외한 2억1천만원을 고려해 산정한 금액이다.

GS건설 측은 GS건설 측이 제시한

보상안의 지원 규모가 턱없이 부족하고

중도금 이자 관련 지원책도 전무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비대위는 지원금 산정 기준을 서구 평

균 전세가 2억4천만원이 아닌 입주 예정

아파트 부근 평균 전세가 3억3천만원으

로 삼을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 경우 대

출 지원 규모는 1억2천만원으로 늘어나

GS건설 측이 제시한 보상안과 비교해 큰

차이가 생긴다. 비대위는 입주 예정 아파

트의 경우 실거주 목적으로 청약한 경우

가 많은 만큼 당장의 주거 문제를 해결할

지원도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총 1천666가구에 이르는 해당 아파트

단지는 전체의 84.8%가 특별공급으로

분양됐으며 이 중 신혼부부나 생애최초

분양인 경우는 915가구에 달한다.

지난 4월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와 입주예정자 사이에 보상 협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

20일 인천검단AA13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에 따르면 시공사인 GS건설과 비대위는 2개월째 보상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좀처럼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GS건설 측은 '6천만원 무이자 대출'과

'3천만원 무이자 대출 + 7천500만원 주택

도시기금 금리 대출' 가운데 입주예정자

들이 하나를 선택하는 보상안을 제시한

상태다. 무이자 대출의 경우 전용면적 84

m² 평형을 기준으로 분양가 4억2천만원

중 계약금과 중도금 일부를 제외한 2억1천만원을 고려해 산정한 금액이다.

GS건설 측은 GS건설 측이 제시한

보상안의 지원 규모가 턱없이 부족하고

중도금 이자 관련 지원책도 전무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5년 전처럼 '2차전 쇼크' 없어야…황선홍호 2차전 상대는 태국

9-0 대승에도 웃지 않는 황선홍호…5년 전 못한 조1위 16강행 도전

2023 항저우 아시안게임 남자축구 첫 경기부터 9골을 몰아친 황선홍호가 기록적 대승의 기쁨을 잠시 제쳐두고 태국과 2차전전에서도 '무결점 승리'를 노린다.

황선홍호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은 한국시간으로 오는 21일 오후 8시30분 중국 저장성의 진화 스포츠센터 스타디움에서 태국을 상대로 대회 조별리그 E조 2차전을 펼친다. 19일 쿠웨이트(승점 0)를 상대로 무려 9-0 대승을 따낸 한국(승점 3·골득실 +9)은 E조 선두로 올라섰다. 바레인과 태국은 같은 날 1-1로 비겨 승점 1만 나눠 가졌다.

21개 팀이 6개 조에서 경쟁하는 이번 대회에서는 각 조 1~2위를 차지한 12개 팀과 각 조 3위 가운데 성적이 좋은 상위 4개 팀이 16강에 오른다. 한국은 쿠웨이트, 바레인, 태국과 함께 E조에 포함돼 1차전부터 대승을 거두면서 우승 후보다운 위용을 과시했다.

21일 예정된 태국전에서 한국이 승리하면 2승으로 조기에 16강 진출권을 확보한다. 태국과 바레인이 1차전에서 비긴 터라 황선홍호가 연승하면 조 2위 아래로 떨어지는 경우의 수는 없다.

첫 경기부터 9골(전반 4골·후반 5골)을 퍼부은 대승에 웃을 법도 하지만 황선홍



황선홍호 감독이 9-0 대승을 거둔 뒤 선수들을 격려하고 있다.

감독과 선수들은 여전히 긴장을 풀지 않는데. 직전 대회인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우승한 김학범호의 여정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김학범호는 최종적으로는 금메달을 목에 걸었지만 우여곡절이 있었다.

당시 대회 첫 경기 바레인전에서 6-0 대승을 거둔 김학범호는 말레이시아와 2차전에서는 거짓말처럼 졸전을 펼치다가 1-2로 졌다.

이 패배로 조 2위로 16강에 나선 김학범호는 8강부터 강호 우즈베키스탄을 만나 연장 혈투를 펼치며 마음을 졸여야 했다. 결국 4-3으로 이기긴 했지만, 이 경기

는 김학범호의 최대 고비로 꼽혔다.

이런 맥락을 아는 황 감독은 쿠웨이트 전 직후 "매 경기 최선을 다해 승리를 따낸다"며 "자신감은 갖되 나머지는 다 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감독이 항저우의 무더운 날씨와 촘촘한 대회 일정 속에서 선수단을 어떻게 운영할지도 주목된다. 에이스 역할을 맡은 이기완(파리 생제르맹)이 21일 오후

항저우에 도착하는 가운데 황 감독은 쿠웨이트와 1차전에 주요 전력인 흥현석(헨트), 설영우(울산)도 후반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나서야 투입했다.

이들이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의 부름

을 받고 9월 A매치를 소화한 터라 체력 부담을 덜어주려는 이유도 있지만, 대회 일정에 대한 황 감독의 고민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2차전 태국전까지 휴식 시간은 단 하루다. 쿠웨이트전에서 조영숙(김천), 정우영(슈트트가르트) 등 공격진이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씨에도 왕성한 압박과 활동량을 보였는데, 황 감독이 이들에게 휴식을 줄 가능성도 있다.

황 감독은 "하루 쉬고 바로 경기를 해야 해 (대표팀) 기술 부서와 면밀히 의논하겠다. 여러 상황을 고려하고 있다"며 "조별리그 일정에 따라 조금 조절할 생각"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2차전 상대인 태국은 바레인을 상대로 무승부를 거두긴 했지만, 사실 쿠웨이트처럼 1패를 먼저 안는 팀이 될 수도 있었다. 전반 42분 선제골을 허용한 태국은 바레인 공격진의 압박에 시종 수세에 몰렸고, 후반 정규 시간이 다 지날 때까지 만회 골을 넣지 못해 패색이 짙었다.

그러나 후반 추가 시간으로 10분이 주어진 가운데 후반 종료 휴식이 울리고 5분이 흐른 시점 푸라颤 토사낮이 기습적인 원발 슈팅으로 골망을 훔들어 어렵게 패배를 면했다. / 최준용 기자



소노, 유니폼 공개

프로농구 소노 창단

'대포'처럼 3점 많이 쏘겠다

프로농구단 '고양 소노 스카이거너스'가 정식 창단해 KBL 막내 구단으로 첫발을 내디뎠다.

소노는 20일 오전 경기 소노캄 고양 그랜드볼룸에서 창단식을 열었다. '스카이거너스'를 더해 '소노 스카이거너스'라는 팀 명을 확정한 농구단은 이광수 대표이사, 이기완 단장과 김승기 감독을 중심으로 선수단을 구성했다.

소노는 이탈리아어 'Sogno'를 부르기 쉽게 변형한 것으로 '꿈, 이상향' 등을 의미한다.

스카이거너스(Skygunners)는 '하늘 높이 향하는 대포'라는 의미다.

창단식 사회를 맡은 방송인 김용만은 "하늘 높이 향하는 대포를 쏘는 사수를 의미하는 '스카이거너스'와 소노가 만나 꿈을 향해 멋진 골을 쏘게 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소노는 기존 고양 데이원 시절 주축으로 활약한 국내 프로농구 최고 슈터 전성현과 이정현 등 기존 전력을 대부분 유지한 채 2023-2024시즌에 참가한다.

각종 인사들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창단을 축하했다.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은 "소노 구단이 펼칠 감동 농구와 팬들의 생생한 응원 열기가 기대된다"며 "행복한 구단, 편안한 마음이라는 구단의 지향점처럼 행복을 주는 경기를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땀과 노력이 빛을 발하고, 앞으로 나아갈 도약을 힘차게 응원한다"고 격려했다.

김희욱 KBL 총재는 "소노가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바란다"며 "프로다운 환경에서 농구에만 전념하고, 재미와 감동이

가득한 플레이를 통해 팬의 사랑을 듬뿍 받는 팀이 되길 바란다"고 덕담했다.

소노는 전면의 화면을 통해 새로운 유니폼을 입은 선수들의 프로필 사진을 공개했다.

유니폼은 구단을 상징하는 하늘색 바탕에 짙은색 폰트의 영문 '소노'와 선수들의 등번호가 전면에 배치됐다.

이어 양복을 입은 김승기 감독과 16명의 선수단 전원이 단상에 등장했다.

김승기 감독은 "강력한 디펜스를 주무기로, 스피드를 통해 속공도 많이 하겠다"며 "엠블럼(대포 모양)에 맞게 하프 라인만 넘어가면 언제든 3점을 쏠 수 있는 팀으로 거듭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어떤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해 팬에게 박수받을 팀이 되겠다"며 "농구를 사랑하는 팬과 소노 가족, 특별한 농구 여행을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내보였다.

주장 김강선은 "에이스인 전성현을 비롯해 선수들이 더 책임감을 갖고 팬을 위해 열심히 뛰었으면 한다"며 "힘든 시기에 팬이 큰 도움이 돼 감사하다. 이번 시즌에는 더욱 감동을 줄 선수단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전성현은 "팀 이름이 '대포를 쏘는 사수'인데 나는 KBL의 명사수로서 멋진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이정현과 가장 호흡이 좋다"고 말했다.

김승기 감독에게 "지난 시즌을 통해 많이 성장하게 해주셨다"며 존경의 뜻을 표한 이정현은 "감독님 덕분에 대표팀에도 뽑혔다. 그에 걸맞은 활약으로 보답하겠다"며 김 감독을 업고 활짝 웃기도 했다.

/ 백현 기자

프로야구 추석 당일 입장료 '최대 50% 할인'

한국야구위원회(KBO)가 추석 당일인 29일 열리는 LG 트윈스-두산 베어스(잠실), 한화 이글스-롯데 자이언츠(부산), KIA 타이거즈-키움 히어로즈(고척) 등 총 3경기에 1만9천 628명을 대상으로 최대 50%의 입장료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KBO는 "올 시즌 흥행에 대한 팬 성원에 보답하고, 추석 황금연휴를 맞아 팬들이 가족과 함께 야구장을 찾아 즐겁게 응원하도록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두산은 외야석 전체 5천800명을 대상으로 50% 할인, 레드석과 네이

양진서, KLPGA 드림투어 우승…3개 대회 만에 첫 승



양진서가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2부 투어인 드림투어 대회에서 우승했다. 양진서는 19일 대구 이지스카이 CC(파71·6천337야드)에서 열린 KLPGA SBS골프 드림투어 이지스카이CC 2차전(총상금 7천만원) 대회 마지막 날 2라운드까지 최

종 합계 13언더파 129타로 정상에 올랐다.

지난해 3월 준회원으로 입회한 양진서는 올해 8월 3부 투어인 점프투어 12차전에서 우승해 정회원 자격을 얻었다.

곧바로 드림투어로 무대를 옮긴 양진서는 드림투어 세 번째 대회 출전에 첫 승을 거뒀다. 우승 상금은 1천50만원이다.

2004년생 양진서는 "원래 시드 순위전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오늘 결과로 정규투어에 적행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고 "올해 남은 5개 대회에서 1승을 추가하고 싶다"고 말했다.

/ 박지원 기자

**posco
INTERNATIONAL**

친환경 에너지 전문기업 종합사업회사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인터내셔널이 포스코에너지와
하나가 되어 더 밝고 더 따스한 미래를 열어갑니다

·LNG사업 밸류체인 완성·



With POSCO

2002년의 1편을 다시 보는 느낌...영화 '가문의 영광: 리턴즈'

11년 만에 나온 여섯 번째 '가문의 영광'...1편의 리메이크작

'가문의 영광' 시리즈는 한국 특유의 가족 문화에 조폭이라는 소재를 끌어들여 개성적인 코미디를 빚어내면서 관객들의 오랜 사랑을 받았다.

1편 '가문의 영광'(2002)을 시작으로 5편 '가문의 영광5-가문의 귀환'(2012)에 이르기까지 관객 수를 모두 합하면 2천만 명에 달한다. 5편이 나온 지 11년 만에 6편이 나왔다. 올해 추석 연휴를 앞두고 개봉하는 '가문의 영광: 리턴즈'다.

이 영화는 1편인 '가문의 영광'의 리메이크작으로, 1편의 이야기를 충실히 따르되 요즘 세대의 감수성에 맞춰 디테일에 변화를 줬다. 주인공 대서(윤현민 분)는 스타 작가로, 어느 날 밤 클럽에서 놀다가 술에 취해 정신을 잃는다. 다음 날 아침 침대에서 눈을 뜬 그는 바로 옆에 말 한마디 섞어본 기억이 없는 여자 진경(유라)이 누워 있는 걸 보고 기겁한다.

사무실로 출근한 대서를 진경의 오빠 석재(탁재훈), 종면(정준하), 종칠(고윤)이 기다리고 있다. 이들은 대서에게 흥덕자(김수미)를 정점으로 한 가계도를 보여주면서 "하나뿐인 여동생과 동침했으니 책임을 져야지"라고 한다.

이들이 물불 가리지 않는 조폭 집안이



영화 '가문의 영광: 리턴즈'의 한 장면

란 걸 알게 된 대서는 어떻게든 그 손아귀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지만, 이들은 대서를 호락호락 내주지 않는다. 그러는 동안 대서는 자기도 모르게 진경과 사랑에 빠진다. 이야기의 흐름은 1편과 거의 같다. 1편을 본 관객이라면 등장인물의 대사와 행동까지 예측할 수 있을 정도다. 침대에서 잠을 깐 대서가 이불 밑으로 나온 두 발을 보고 의아한 표정을 짓는 중에 갑자기 발이 부르르 떨리면서 진경이 눈을 뜨는 것도 1편과 같다.

1편을 본 관객은 양가의 상견례 자리에서 대서 부모의 탐탁지 않은 반응에 직면한 흥덕자가 어떻게 나올지 알고, 예측은

그대로 맞아떨어진다.

이 영화는 몇몇 설정에 변화를 줘 새로운 느낌을 더하기 했다. 대서가 작가인 것도 1편의 대서가 서울대 법대 출신의 대기업 직원인 것과는 대비된다. 1편에서 진경이 속한 조폭 집안의 수장은 남성이지만, 이 영화에선 여성인 것도 차이점이다. 그러나 이야기의 흐름이 1편을 거의 그대로 따르다시피 하면서 새로운 이야기에 대한 관객의 기대를 충족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1편이 나온 지 21년이나 지났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이야기의 중심엔 대서와 진경이 술에 취해 한 침대에서 잔

사건이 있지만, 이에 대한 정서는 1편 때의 관객과 요즘 관객이 같을 수 없다. 관객의 공감도가 그만큼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이 영화의 출연진이 코믹 연기에선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출중한 배우들이란 점을 고려하면 아쉬움은 더욱 커진다.

액션 장면은 길지 않지만, 상당히 역동적이다. 특히 흥덕자 집안의 배신자 엇짜리 역을 맡은 격투기 선수 추성훈은 패싸움 장면에서 장기를 발휘한다.

'가문의 영광: 리턴즈'는 '가문의 영광' 시리즈 전편을 제작하고 4편을 연출한 정태원 감독과 2편, 3편, 5편을 연출한 정용기 감독이 공동 연출했다.

이 영화는 오는 27일 개봉하는 강제규 감독의 '1947 보스톤', 김지운 감독의 '거미집', 김성식 감독의 '천박사 퇴마 연구소: 설경의 비밀' 등과 함께 추석 대목을 맞은 극장가에서 경합을 벌일 예정이다.

정태원 감독은 19일 시사회에서 "좋은 영화들이 많지만, 우리 영화는 장르가 다른 만큼 골라 볼 수 있는 재미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1일 개봉. 99분. 15세 관람가. / 김채원 기자



세븐틴, 내달 11번째 미니음반 '세븐틴스 헤븐' 발표

그룹 세븐틴이 다음 달 23일 열한 번째 미니음반 '세븐틴스 헤븐'을 발표한다고 소속사 플레디스엔터테인먼트가 20일 밝혔다.

세븐틴은 이날 공식 SNS에 올린 티저 영상으로 신보 발매 소식을 전했다.

이들의 새 음반은 지난 4월 열 번째 미

니음반 'FML' 이후 약 6개월 만이다.

'FML'은 발매 당일 한터차트 기준 400 만장에 육박하는 판매량을 기록했고, 발매 약 2개월 만에 유튜브 YG플러스 자체 접속 기준 누적 판매량 620만장을 넘겼다. 이는 K팝 단일 앨범 사상 최다 판매량 기록이다.

/ 오현민 기자

미국 특수부대 합류한 '강철부대3'...“누가 제일 센데?”



특수부대 예비역들이 각 부대의 명예와 자존심을 걸고 유탄전을 벌이는 예능 '강철부대'가 시즌3으로 돌아온다. 미국의 특수부대까지 침전해 판을 더욱 키웠다.

19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채널A·ENA 예능 '강철부대' 시즌3 제작발표회에서 마

스터로 출연하는 특수부대 출신 최영재는 "영화에서만 봤았던 국가와 하늘과 땅과 바다를 지켰던 사나이들이 여러분에게 엄청난 열광을 안겨줄 모습을 보여드릴 것"이라며 기대감을 높였다.

특수부대 출신 예비역들이 팀을 이뤄

어떤 부대가 최고인지 경쟁하는 '강철부대'는 이번 시즌에서 미국 특수부대가 뛰어들어 이전 시즌과 차별화했다.

미국 해군 특수부대 네이비씰(Navy SEAL)과 육군 특수부대 그린베레(Green Beret) 두 부대의 연합 USSF(US Special Forces)가 참전한다. 한국에서는 제707특수임무단, 해군 특수전전단(UDT) 육군첩보부대(HID), 해군첩보부대(UDU), 특전사(육군 특수전사령부)가 참가한다.

MC를 맡은 김성주는 "특수부대 쪽에서 대표성이 인정되는 분들이 대거 출연한다. 저 정도 되는 사람이 나왔으면 저 특수부대는 충분히 최강이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만큼의 출연진이 확보됐다"고

말했다. 이어 "시즌제로 운영되면 시청자들도 빤히 흐름을 읽어서 다음을 예상할 수 있게 되지만, 녹화를 진행하면서 보니 새로운 흐름이 들어가고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나오면서 놀랄 만한 요소들이 많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시즌3의 오프닝 장면은 군 내 협조가 필요한 동해상의 해군 군함 위에서 활영했다고 한다.

이번 시즌에 새롭게 MC로 합류한 그룹 하이라이트 윤두준은 "(해군 군함에서) 첫 촬영을 진행했는데 이렇게까지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기억에 남았다"고 소감을 말했다.

시즌 1·2와 다르게 '강철부대3'는 흑서기에 진행됐다. 이에 따라 출연자들이 해결해야 할 과제들의 난도도 높아지고 제작진의 고생도 심했다고 한다.

/ 정기훈 기자



그룹 엑소 디오가 지난 18일 발매한 두 번째 미니 앨범 '기대'가 일본, 대만, 베트남, 싱가포르, 스페인 등 세계 42개 지역 아이튠즈 톱 앨범 차트에서 1위에 올랐다고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가 19일 밝혔다.

이 앨범은 월드와이드 아이튠즈 앨범 차트 및 한터차트, 교보문고 등 국내 음반 차트 일간 순위에서도 1위에 올랐다.

/ 신민경 기자

검찰연합일보

www.unionilbo.com

회장·발행인	송원기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여의도동) 국회본관 175
편집인	최두한	대표전화	1533-1545 / 팩스 : 0508-9192546
인쇄소	아이피디	E-mail	unionilbo12@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서난영	등록번호	서울, 아53015 서울, 기50142
구독 광고 문의 : 1533-1545 / 구독료 : 월 15,000원, 1부 800원			*

I Dream
로봇친구
“엄마~ 로봇친구가 생겼어요!”

지민이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KDB산업은행이 대한민국 미래산업을 여는 KEY가 되겠습니다

KDB산업은행

